

# 어서 병상에서 일어나 다시 청년들 곁으로 오시라

여기 가족 사진이 하나 있다. 아버지와 딸, 그리고 어머니와 엄마. ‘어머니와 엄마’란 말에서 보여지듯 굴곡 많은 우리네 현대사를 온 몸으로 부딪히며 살아온 가족이 모처럼 만에 한데 모여 웃음꽃을 피운 것도 잠시. 또 다시 찾아온 이별과 죽음 그리고 지리한 병마와의 싸움. 여성 빨치산 박순애 선생이 지금 병상에서 싸우고 있다. 인생의 마지막이 될 지도 모르는 싸움을.

정웅일 편집국장 hopemake@paran.com

고향인 전라북도 임실에서 독립운동가이자 교육자였던 아버지와 결혼 후에도 양잠학교를 졸업하고 다른 여성들을 깨우치셨던 선각자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박선애(1927년생)·박순애(1929년생) 선생은 항일운동가이자 문학 청년이었던 오빠의 영향을 받아 일찍이 세상의 모순에 눈을 뜨게 된다.

### 정신적 지주였던 오빠의 죽음과 입산(入山)

지긋지긋한 일제의 식민통치가 끝나고 감격적으로 맞이한 해방. 그러나 작은 강도가 물러가자 이번에는 큰 강도가 들이닥쳤다. 미군의 진주 그리고 군정통치. 1948년 여순항쟁이 발발하자 어디론가 끌려갔던 오빠는 재판도 없이 죽임을 당하고 만다. 망연자실. 그렇게 엄격하던 아버지의 눈에서는 피눈물이 흐르고 어린 여동생들은 밤새

울고 또 울었다.

그러다 터진 전쟁. 얹치락뒤치락하던 전황 속에서 토벌과 폭격을 피해 마을 사람들과 함께 들어간 회문산. 두 자매는 어린 남동생을 데리고 그렇게 산으로 갔다. 그러나 빨치산 대장의 연락병을 하던 나 어린 동생은 추운 어느 겨울 날 자신이 신고 있던 새 신발을 누이에게 주고, 자신은 헌 신발을 신고 작전에 나갔다 영영 돌아올 수 없는 불귀의 객이 되고 말았다. 그때가 아마 중학교 1학년이었던가.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자식처럼 키운 동생이었는데...

화불단행(禍不單行)이라고 했던가. 시련은 남은 자매에게도 닥쳐와 언니는 대중사업을 하다가, 또 동생은 산에서 잡히고 만다. 역이용을 위한 회유공작이 벌어지고, 급기야 아버지가 면회를 왔다.



■ 비전향장기수 송환이 있기 전 윤희보·박선애 선생 부부와 박순애 선생의 다정한 한 때. 그러나 지금 윤희보 선생은 복벽에, 박선애 선생은 먼저 저 세상으로 가셨다. 그리고 홀로 남은 박순애 선생은 지금 병상에서 싸우고 있다.

“너희들, 아버지는 생각하지 말고 너희들 일이니까 알아서 해라.”

그리고는 포로수용소로, 다시 대구형무소로. 이후부터 공주교도소, 서대문형무소를 거쳐 대전교도소에 이르기까지 길고 긴 감옥살이가 시작된다. 그 과정에 저 악명 높은 ‘전향공작’으로 온 몸은 말 그대로 만신창이가 되고 말았다. 교도소에서 배운 교훈 가운데 하나는 ‘많이 배우고 지위가 높은 사람은 말만 번지르르 하지만, 정작 어려울 때는 못 배우고 가난한 사람들이 지조를 지키더라’는 것이다. 그리고 길고 긴 인고의 세월을 학습하고, 노래부르고, 운동하면서 한 시간도 허투루 보낸 적이 없다.

### 엄마가 어머니로, 이모가 엄마로 된 사연

1960년 4·19 직후 복막염 덕분에 형집행정지로 풀려

난 박순애 선생은 다시 잡아들이려는 형사들을 피해 서울로 가서 생활하다 주변의 소개로 평양외국어대를 나온 인민군 출신의 고씨 성을 가진 사람과 결혼했다. 한편, 1965년 혈압과 죽을 것 같은 고통 때문에 석방된 박선애 선생도 혼자보다는 그래도 둘이 낫다는 주변의 권유로 비전향장기수 윤희보 선생(1963년 출소)과 결혼식을 올린다. 처음엔 갈등도 많았던 시어머니와 서로 마음을 열게 되면서 고단한 삶에도 서광이 비치는 듯했고, 나이 마흔이 넘어 마치 꿈을 꾸듯 딸도 낳았다.

자매도 자주는 아니지만 서로 왕래하며 지내던 1975년. 세계 사법사상 전례가 없는 사회안전법이 발효되면서 윤희보 선생과 박선애 선생은 6살짜리 어린 딸을 혼자 남겨두고 다시 감옥으로 끌려가야 했다. 박선애 선생은 생전 그때를 회상하며 “나이 마흔이 넘어 얻은 곱디고운 딸



“지금은 조금 힘들지만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한번도 역경에 굴하지 않으셨던 어머니와 엄마  
당신들을 보면서 그 말이 틀리지 않음을 믿습니다.  
우리 가족이 다시 모여 함께 웃을 날을 기다립니다.

아이가 흑여 고아원에 보내져 해외입양이라도 가버리면  
영영 못 찾을까봐 처음으로 전향을 고민해봤다”고 회고  
한 적이 있다. 그 애꿎은 모성애를 대신한 것이 바로 이  
모였다.

박순애 선생은 언니와 형부가 다시 구속됐다는 소식을  
듣고는 수소문 끝에 조카를 찾아내 친딸처럼 기르게 된  
다. 혹시라도 아이에게 피해가 미칠까봐 이모는 아예 남  
편의 호적에 조카를 올렸다. 이름은 아버지와 엄마의 이  
름에서 한 자씩 따서 ‘희선’으로 지었다. ‘고희선’. 평생  
엄마, 아빠 이름을 기억하면서 살라고….

그러나 조카를 기꺼이 자신의 호적에 올리라던 남편은  
전쟁 때 입은 파편 부상이 도져 결국 먼저 세상을 떠났고,

언니가 출소한 뒤에도 주거제한에  
걸려 자매가 함께 살지도 못했다.

그러나 아무리 모진 세월도 시대  
의 변화를 가로막지는 못하는 법.  
2000년 6월 15일, 분단사상 최초로  
남북 정상간에 회담이 이루어지고  
공동선언이 나왔다.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통일은 곧 눈앞에 다가온 것  
처럼 보였다. 비전향장기수들에 대  
한 송환도 결정됐다. 비록 이산가족  
이 될 아픔이 적지 않았지만 곧 통일  
이 되리라는 믿음을 안고 박선에 선  
생은 남편 윤희보 선생에게 “걱정하  
지 말고 올라가라”고 권한다. 자신도  
비전향장기수였지만 아직은 여기 남  
아서 할 일이 있다고, 조만간 곧 만  
나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 아직은 눈을 감아서는 안 되는데

그러나 아직 통일도, 가족의 상봉  
도 이뤄지지 못했는데 2010년 9월  
27일 박선에 선생은 향년 84세를 일

기로 영면에 들고 말았다. 평소 그렇게 좋아하던 청년학  
생들의 간절한 기도도 뒤로 한 채. 그리고 평생 동지이자  
언니의 공백이 너무 컸던 탓일까, 동생 박순애 선생 역시  
지금 어려운 투병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 일산 동국대병원에 입원해 있는 박순애 선생의 상  
태에 대해 담당 의사는 “자가 호흡이 제대로 되지 않아 계  
속 기관지 절개술에 의한 인공호흡기를 유지하고 있으며,  
인공호흡을 줄여 가는 연습을 조금씩 시도하는 상태다.  
결핵균이 온몸에 퍼져있다고 봐야 하며 폐렴도 같은 맥락  
으로 염증의 정도가 왔다갔다하는 상태이다. 그래서 지금  
드시는 결핵약은 앞으로 살아 계시는 동안 끝까지 드셔야  
한다. 배가 꺼지지 않고 부어있는 상태로 장 마비와 장 협

착으로 인해 장운동이 원활하지 않아 영양주사로 지탱하  
고 있는 형편이다. 위장과 십이지장 부근에서 심각한 출  
혈이 몇 차례 있었고, 곧바로 수혈과 간단한 수술조치로  
지금은 괜찮지만 언제 다시 재발할지 모르는 상황이다.  
심장기능의 저하와 부정맥 등이 간헐적으로 보이고 있지  
만 위장관 출혈로 인해 심장 쪽에 혈전을 막을 수 있는 적  
절한 처방을 하지 못하는 상태다”라고 말한다.

한 마디로 바람 앞의 등불과 같은 상태라는 말이다. 그  
러나 곁에서 간호를 하고 있는 희선 씨에 의하면 “아직까  
지는 호전이 매우 느리거나 없고 전체적인 컨디션이 저하  
되고 있지만, 그래도 의식이 없지는 않아서 주변에 반응  
하고 알아보기도 한다”는 희망적인 소식을 전했다. 지금  
박선에 선생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병마에 맞서 싸울 주  
변의 관심과 지원이다.

#### 병마에 맞서 싸울 관심과 지원이 절실

한편, 지난 2009년 11월에는 ‘박선에·박순애 선생님  
후원회’(공동회장 윤한탁, 양은찬)가 만들어져 주로 선생  
들 소식을 알리며 재정적으로 후원하는 일을 진행해왔다.  
또한 사람들이 선생들 맥을 방문하도록 독려하는 일을 해  
왔다고 한다. 2010년 9월 25일 박선에 선생님이 돌아가  
신 다음에는 ‘박선에 선생님 추모 박순애 선생 후원회



■ 2010년 3월 9일,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는 동생을 위로하는 박선에 선생.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해 9월 27일 선생이 먼저 영면에 들고 말았다(왼쪽). 2010년 10월 10일 윤희보 선생의 생일을 맞아 병상에서도 환하고 웃고 있는 박순애 선생.

(cafe.daum.net/park-sister)’로 명칭을 변경해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한편, 유일한 혈육인 고희선 씨는 주변에서 동국대 병  
원 측에 선생님의 딱한 사정을 알리고 병원비를 일부라도  
감면해줄 것을 요청하려 하자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우  
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받아야 할 혜택인 것 같다”며  
“비록 형편은 어렵지만 최선을 다해서 엄마를 모시겠다”  
고 정중하게 사양했다.

후원회에서는 박선에 선생 1주기에 맞춰 선생의 삶을  
다룬 약전을 출판할 계획이며, 오는 6월 8일(수) 7시 도봉  
구민회관 3층 소공연장에서 ‘박순애 선생 병원비 마련을  
위한 후원의 밤-약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2]

**후원계좌** 국민 782701-04-062455 양은찬(박순애후원회)  
**우리** 1002-536-143904 양은찬

